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믿음대로 되리라

성경: 마태복음 9장 27-31절

Tag:

27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28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29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30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31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마 9:27-31)

마태복음 9장은 주로 치유와 축귀에 대한 기록이 많다.

먼저는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데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셨다.

누가복음 5장에는 이 이야기가 더 드라마틱하게 기록되어 있으나, 마태가 더 핵심적인 묘사를 하였다.

친구들이 데려온 중풍병자의 치유 기적은 다른 치유 기적과는 다른 면이 있는데, 먼저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 본인의 믿음의 유무를 묻지 않으셨다는 점이다. (대부분은 믿음의 유무 확인이 필수 코스이다.)

그리고 환자에게 친근하게 ‘얘야, 용기를 내렴!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단다’ 하셨다.

이 중풍병자의 경우,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강조하셨고, 곁에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놀라는 것을 아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말 중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고 물으셨다.

-당연히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쉽다. 환자에게도 부담되지 않고, 청중들에게도 그렇고, 예수님은 확실하게 자신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자로 청중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많은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일부러 하셨다. 왜냐면 그 말이 그 환자에게는 치유와 재발 방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더 핵심적인 말이기 때문이다. (그 환자 자신 만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가 무슨 죄인지 안다)

또 모인 무리들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일부러 율법주의자들이 듣기에 신성모독스러운 말을 하심으로 그들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기회를 찾기를 바라셨을 것이다.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어떤 말이든 꺼림이 되기 때문에 말꼬리를 잡는 특징이 있다. 안타깝게도 그런 점 때문에 핵심을 놓치고 구원의 기회를 놓친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두 맹인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다. 그들이 내 지르는 소리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일종의 신앙고백이다. 다윗의 자손이라 불릴 수 있는 자는 당시에 메시아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이미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있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큰 소리를 지를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목적하는 집으로 들어가셨다. 맹인들은 아마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가까스로 그 집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는 내내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을 외쳤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공이 크다. 이미 만 천하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였고,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리를 크게 지르며 예수님을 찾았다.

가까스로 예수님과 대면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의례히 믿음의 유무를 확인하셨다. 그들은 확신에 차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였고, 예수님은 눈에 안수하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며 그들을 고쳐 주셨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치유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치유의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30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31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마도 예수님의 경고 때문에 소문이 **암암리에** 전파되었으리라 본다. (내가 너에게만 말해 주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막 1:44)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나병을 고쳐 주신 다음에)

(막5:43)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졌다는 표현은 복음서에 약 10회 정도 사용됨.

소문은 당시에 복음전파 효과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기적과 관련된 소문 만큼은 암암리에 전파되도록 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치유 기적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긴 하지만, 그것이 사역의 핵심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 특히 구원과 관련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런데 만약 치유에 집중하게 되면, 주객이 전도되는 결과를 낳는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치유가 필요할 때 치유하는 것이지, 치유 자체가 우선시 되는 것을 경계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대부분 누군가로부터 치유를 요청 받았을 때 들어 주셨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일부러 환자들을 찾아가거나 하지 않으셨다.

침묵 경고의 이유가 담긴 두가지 말씀;

34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막1:34)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막 9:9)

다만 기적에 관한 소문에 대해서는 엄히 경고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심.

또 귀신에게는 입을 다물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가 진실을 말한다 치더라도 귀신에게 전도하도록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귀신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결국 악한 의도로 복음의 함의를 왜곡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또한 기적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더욱 흥분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충분한 복음전파를 위해서 기적 이야기가 핵심 이슈가 되는 것을 방지하셨다.

그렇다면 이 침묵명령은 언제까지 하라는 말일까?

막 9:9절에 보면 침묵명령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실 때, 즉 부활 때까지 명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기적과 관련된 이야기는 부활 이후까지 침묵하라 하셨을까?

그것은 기적 그 자체가 복음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이었다. 복음의 완성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계획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완성되어야 했다. 당시 침묵 명령을 내렸을 때는 이제 곧 복음의 완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했다.

우선 구약이 예수님의 탄생까지의 여정이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은 요한의 탄생이었다.

그러므로 신약은 요한의 임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왜냐면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가 요한이기 때문이다.

요한은 계시를 따라, 광야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다.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였다.

요한의 정체성은 메시아를 지목하는 것이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었고, 다만 메시아를 지목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는 돋보기처럼 예수님께 집중하여 그가 메시아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역할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결국 요한의 권유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예수님은 곧바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충분히 잘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차피 성령께서 오셔서 깨우치지 않는 이상 제자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을 잘 알고 계셨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귀에 못이 박이도록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다.

치유의 기적도 구원의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치유를 베풀었지만, 기적이 곧 구원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완성될 때까지 기적의 소문이 커지는 것만은 경계하셨다.

엄밀히는 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셨다.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다 병든자나 기적이 필요한 자들. 당장은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도, 후에 자신이 무엇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신 셈이다.

-예수님이 메시아(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치유도 구원의 한 단락임)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구원의 증거로서의 치유가 가능 해진다.

-요즘은 대부분의 치유를 병원과 의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생활습관으로 기인한 병들이 많아 생활습관을 고치지 않는 이상 재발이 빈번하기 때문에 단순한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단순한 믿음으로는 곤란하고 더 강력한 믿음이 요구된다.

-생활습관을 고치는 것은 단순한 믿음의 정도를 넘어 강력한 경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모든 질병 가운데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더욱 높이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치유의 지름길인 것은 확실하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며, 경건의 핵심 또한 예수님이 이룩하신 복음의 핵심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복음을 자신의 삶에 더 깊이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